

# 1.2조 혁신성장펀드 조성… 8000개 스타트업 지원

서울시, 2022년까지 민·관 참여  
올해 재원 2000억원 이상 마련

서울시가 5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해 8000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2000억원을 조성해 창업 3년 미만 초기 벤처기업, 재기 창업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창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5년간 ▲ 4차 산업혁명 펀드 4500억원 ▲ 창업펀드 5000억원 ▲ 바이

오펀드 1000억원 ▲ 문화콘텐츠펀드 1000억원 ▲ 재기펀드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SBA)에서 200억원을 출자하고, 중앙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총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창업 생태계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나선다.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가 맡아 서울 전역의 개별 창업센터를 특화하는 방향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서울 창업허브 별관동, 11월에는 서울마이오 허브 연구실협동(신관)을 개관한다. 2019년 홍릉 BT-IT센터(바이오·IoT),

2020년 동북권창업센터(첨단제조업), 2021년 마곡 공공산업지원시설(첨단R&D) 등 창업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5년간 800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충분한 현지화 전략과 지식을 습득시키고,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은 서울에 유치해 국내 창업 생태계의 세계화도 도모한다.

우선 중국 '대공방'(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I-LAB 등 해외 유수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하고, 서울시 창업기업에 투자연계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선발해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해외 도시와 교환보육도 추진한다. 경쟁으로 선발된 최우수 기업 3곳에는 해외 현지시장 탐색과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창업허브와 서울 전역의 창업지원시설을 연계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원제품 생산, 투자유치·판로개척,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 노후 아파트 철거 않고 리모델링… 시범단지 5곳 조성

서울시, 공공주택 주거환경 지원  
내달 2~6일 시범단지 신청·접수

서울시는 아파트를 부수지 않고 고쳐서 계속 사용하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5곳 가량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

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공공이행·재정적으로 지원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확보한다.

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공동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사업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 없이 기존 주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

터, 세대수 증가를 통한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도 포함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2일~6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5개소 내외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다. 사업을 희망하

는 단지는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4월 중순 발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2.8km 연장

6월 완공… 4개 버스정류장 설치

서울 사당역~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서울시계(市界) 2.8km 구간에 오는 6월 말이면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사당역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서울시계)까지 2.8km 연장하는 공사를 착공한다고 6일 밝혔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09년 11월 동작대로 이수교차로~방배 경찰서 구간 약 2.7km가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는 동작대로 방배경찰서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서울시계)까지 2.8km 연장되고 연장구간에는 버스정류장 4개소(방향별 2개소)가 들어선다. 공사는 6월 말 완료된다.

/이범종 기자



## BBQ, 전북서 매장 열면 3160만원 지원

'상생 창업 프로그램' 진행

제너시스BBQ그룹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BBQ는 조선소 구조조정, 한국 제너럴 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 '상생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BBQ의 '상생 창업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비(1000만 원)와 교육비(400만원) 전액, 인테리어(20평 기준 X평당 88만원) 비용의 40%를 본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비 창업자가 이번 '상생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할 경우 총 3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BBQ가 창립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원하는 이번 '상생 창업 프로그램'은 오는 9일부터 선착순 50명에 한해 진행



지난달 27일 개최된 군산지역 BBQ 패밀리 간 담회에서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너시스BBQ

된다.

'상생 창업 프로그램'을 위해 BBQ는 점포당 3160만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은 "점포당 5명의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50개 점포가 오픈하면 25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

## 폐교 활용 가족캠핑장 6곳 24일 개장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서 접수

서울시는 폐교를 활용한 가족캠핑장 6곳이 24일 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가족캠핑장 6곳은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 서천 금빛노을 서울캠핑장,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 제천 하늘뜨레 서울캠핑장, 철원 평화마을 서울캠핑장, 함평 나비마을 서울캠핑장이다.

이용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1박 2일에 2만5300원이다.

텐트, 테이블, 화덕 등 야영 필수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캠핑장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3월분은 5일, 4월분은 12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전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이범종 기자